TV 속 여우들 '스크린 외출'

성유리·이지아 첫 영화 도전 '풋풋한 연기'

박예진 무당·조여정 춘향 역 '과감한 연기'

'토끼와 리저드' 성유리

'스크린을 점령하라.'

TV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했던 여배우들이 충무로에 속속 입성하고 있다. 성유리·이지아는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했으며 박예진과 조여정 등 주로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었던 배우들도 영화를 통해 관객들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로 데뷔했지만 이후 TV에서 주로 활약했던 박예진은 영화 '청담보살'에서 주연을 꿰찼다.

'청담보살'은 어머니로부터 신내림을 받아 2대째 청담동에서 점집 '포춘살롱'을 운영하는 청담보살 태랑과 한 때 잘나가던 가수였으나 백수신세가 된 승원간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스물 여덟 전에 운명의 남자를 만나야만 액운을 피할 수 있는 사주를 타고 난 미녀 보살 태랑은 어느 날 우연찮은 사고로 눈길도 주기 싫은 찌질남 승원과 오매불망 첫사랑 호준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 태랑은 빌어먹을 운명과 사랑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임창정이 승원 역을 맡았으며 박미선 등이 카메오 출연한다.

드라마에서 주로 활약했던 조여정은 '방자전'을 통해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다.

흥행과 평단에서 모두 좋은 평을 받았던 '음란서생'의 김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방자전'은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을 이몽룡 대신, 방자로 비튼 시대극이다.

춘향이 역을 맡은 조여정은 대담한 노출신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자 역은 김주혁이 맡았다. 개성 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는 류승범이 어떤 모습의 이몽룡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그룹 '핑클' 출신의 성유리는 영화 '토끼와 리저드'로 충무로에 입성한다.

'청담보살' 박예진

'방자전' 조여정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성유리는 드라마 '눈의 여왕', '쾌도 홍길동', '황태자의 첫사랑'을 비롯해 최근 방송을 마친 '태양을 삼켜라' 등에서 주역급 연기자로 활동해 왔다.

오래 전부터 영화판의 '러브콜'을 받았던 성유리가 선택한 '토끼와 리저드'는 친엄마를 찾아 23년만에 서울에 온 미국 입양아 메이와 심장이 2~3초씩 멈추는 희귀병 민히제스트증후군 환자인 은설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 제목 가운데 '리자드'는 메이 등에 새겨진 도마뱀 문신을 가리킨다. 남자주인공은 드라마 '타짜', 영화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등에 출연했던 장혁이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했던 이지아는 영화 '내눈에 콩깍지'를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스크린에 도전한다.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며 혜성같이 등장한 이지아는 이후 '베토벤 바이러스' 등 히트 드라마에 연속 출연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오는 11월 개봉 예정인 '내 눈에 콩깍지'는 매력, 재력, 능력 이른바 '3력'을 모두 갖춘 완벽남 강태풍이 교통사고 후유증인 일시적 시각장애로 인해 못난이 왕소중에게 한 눈에 반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상대역은 김하늘과 출연했던 '7급 공무원'에서 '제대로 된' 코믹 연기를 보여준 강지환이 맡았다.

시트콤 '세 친구'에서 간호사로 출연했던 글래머 스타 정양 역시 스크린 데뷔작 '방자전'을 통해 오랜만에 복귀한다.

정양이 맡은 '월래'역은 춘향전엔 없는 수줍음과 섹시함을 가진 인물로, 전략가로 변신한 춘향에게 조언을 해주는 베일에 싸인 여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눈에 콩깍지' 이지아

새 영화 나는 비와 함께 간다

한국의 이병헌, 미국의 조시 하트넷, 일본의 기무라 타쿠야 등 각국을 대표하는 스타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로 쫓고 쫓기는 세 남자가 기묘하게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형사를 그만둔 클라인은 실종된 아들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그의 아들 시타오를 찾던 클라인은 그가 홍콩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형사 시절 동료 멩지와 함께 추적을 시작한다.

이병헌·하트넷·기무라
한·미·일 세 미남 스타
쫓고 쫓기는 범죄 액션

홍콩의 암흑가를 뒤지던 클라인은 시타오가 홍콩 마피아 보스 수동포의 여자 릴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클라인과 수동포는 시타오를 차지 위해 치열한 추적을 시작한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조시 하트넷과 기무라 타쿠야가 클라인과 시타오 역을 맡았으며 이병헌은 홍콩 보스 수동포로 열연한다.

'그린 파파야 향기', '시클로'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트리 안 홍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감독 특유의 영상미를 선보인다.

여문락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인기 그룹 '라디오 헤드'가 음악에 참여했다. 〈19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